

감염차단·위기극복 올인

익산시, 코로나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동참 비대면 행정업무 활성화·소상공인 지원강화 등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차단과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강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해 나갈 방침이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주부터 구내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해 비대면 식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식할 때에도 개인별로 비닐장갑을 배부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직원들이 방역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실시되는 감사원 대행 감사와 자체 종합감사자료 제출을 최

소화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업무도 강화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신청은 문자와 우편접수로 대체했으며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과에 칸막이를 설치해 비대면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주요 분야별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종교계와 협력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종교시설 81곳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면역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익산시는 지역 929곳 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시설 휴관을 권고했다. 현재 805곳의 시설이 휴관 등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연기했다.

특히 시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사회 위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실천수범하는 한편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공무직노조 “위기상황 극복하자” 물품기탁

휴일 잇은 직원들 건강 염려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양진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 물품은 지난 1월 31일 군산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후 휴일도 반납하고 밤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된다.

양진호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달 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건강요를 준비했으며, 공무직 노조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산시청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양진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고 있으며, 매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열감지 카메라

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다이로움’ 6월까지 10%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입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익산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 10% 인센티브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판

매액 대비 8%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에서는 연간 100억원 발행 예정이던 ‘익산 다이로움’을 300억원까지 확대 발행 운영한다. ‘익산 다이로움’은 지역 자금의 선 순환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출시되어 50여일만에

47억원을 발행하였으며, 6월까지 10%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인센티브 지원뿐만 아니라 3월부터 6월까지 ‘익산다이로움’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평상시보다 두배(60%)금액까지 공제 적용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수강생들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엔 하나로”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내 마스크 제작 나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단체들이 마스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번 마스크 나눔 운동 전개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름 아닌 주인공들은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양재반 수강생들로 이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제작에 들어간 양재반 최원숙 강사의 20여명의 수강생들은 안전과 실용성을 갖춘 건강 마스크 1만장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양재반 자원봉사자들은 기존에 성인용 마스크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아동용 마스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파악하고 아동용 마스크도 추가로 제작해 이달 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배부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 시민 정모(61.여)씨는 “이번 건강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기 전부터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수강생들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를 하게 됐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렇게 여성사회대학 수강생들이 건강 마스크 제작 재능기부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수강생들이 한뼘 한뼘 정성들여 만든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위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 밀집 접촉자들이 늘며 예방 행동수칙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단체들은 따로 마스크 대량 구매에 나서면서 시중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공적 마스크 공평 분배 판매 팔건어

군산시는 지역사회내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공적 마스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홍보 등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약국 126개소, 우체국 12개소, 하나마트 10개소이다. 시는 마스크 구입 판매 변경 사항을 읍면 이장단의 마을 방송을 통하여 판매수량 및 번호표 배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했다. 9일부터는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하여 1매당 1,500원에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또한, 시는 마스크 수급 대응반을 편성해 공적판매처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1인당 판매수량 준수여부, 마스크 판매 안내문 게시 등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정현율 익산시장 하남마을 전자상거래 진행사항점검

정현율 시장은 9일 팔봉동 하남마을에 소재한 마을상품 공동작업장을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해 익산시는 마을 전자상거래 사업 일환으로 농가 생산품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등을 지원해 3만6,000여건 5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잔류농약 검사 및 마을상품 개발 등 품질관리도 새로이 시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판매 다변화에 역점을 두어 진행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하남마을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양파를 출하하여 마을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물량확보 및 판매가격에 민감한 전자상거래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대표 맛집 선정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관광지원 육성을 기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2020년 맛집을 선정한다.

맛집 신청 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한 음식점이며, 제의대상은 주류 전문 취급 소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다.

신규 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음식맛이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등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으로 지정 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현장심사, 3차는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시 위생행정과 방문접수 및 읍·면·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